

[밍후이왕] 떨칠 수 없던 병에서 벗어났을 때, 복잡한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이 주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심신수련공법인 파룬따파 [法輪大法]는 마음의 안정과 신체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자료가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 의지만 있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매달 서울 용산구 천제서점(天梯書店)에서 열리는 '9일 학습반'은 파룬궁 수련의 기초를 9일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14일부터 9일간 프로그램을 마친 이들로부터 수련 체험담을 들어봤다.

22년간 지연된 수련의 기회를 잡아 '환골탈태'하다

30년 경력의 방송국 PD이자 방송작가인 김경일(60대)씨는 22년 전 파룬궁을 처음 알게 됐다. 기공을 좋아하는 유명 가수 선배가 어렵게 구했다며 건넨 DVD가 파룬따파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동영상이었다. 중국어로 된 DVD였기에 몇 번 보다가 그만둔 후 잊고 지냈다. 이후 파룬궁에 대한 박해 뉴스가 나올 때 취재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건강은 악화됐다. 스트레스성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에 심장박동기까지 달고 살아야 했다.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2번이나 쓰러지자 병원에서 달아준 것이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치고는 험난했다. 정신적으로는



▲신수련생들이 파룬궁 연공 동작을 배우고 있다.

한국 서울 파룬따파 '9일 학습반'에 참가한 수련생들의 체험기

우울증에 공황장애로 이어졌고, 매일 아침 각종 알약 17~18알을 털어 넣어야 했다. 처방받은 수면제도 효력을 잃어 불면증이 심각했고, 발작에 처방하는 약도 받아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김 씨는 이럴 바에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광화문을 지나다 파룬궁 연공을 하는 수련생들과 마주치게 됐다. 그는 수련생에게 자료를 살 수 있는 곳을 물었고, 텐티박스를 알게 돼 '9일 학습반'도 시작했다.

“전법륜(轉法輪) 책을 사 온 날, 집에 와서 밤새 고박 읽었어요. 한 권을 한 번 다 읽었죠. 다 읽고 나니까 머리가 갑자기 확 깨는 거예요. ‘아~ 이 책이 내 인생의 지침서구나. 죽기 살기로 수련해야겠다. 수련하려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부터 하루 4~5시간씩 연공 비디오를 보고 배우고, 법공부를 하면서 김 씨는 어느

새 약도 먹지 않게 됐다.

“약을 끊고 나서 처음엔 불안했는데, 그냥 뭐 죽으면 죽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약을 먹었을 때보다 지금 몸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난달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호사님이 피검사 결과 고혈압,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장박동기도 올해로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빼야 되는데, 빼고는 약도 안 먹으려고요. 기계 없어도 이제 건강하니까요.”

김 씨는 “내가 약을 끊고 미래를 버리니까 내 몸이 더 자유롭고 편안해졌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부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라고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던 그는 결과부좌가 되지 않았을 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이거라도 하고 죽자고 생각했다. 신기하게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리를 올릴 수 있었고, 전혀 불가능했던 걸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가부좌도 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사부님 비디오를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라며, “파룬궁 수련으로 진짜 환골탈태했어요. 나이 들어 이렇게 병을 많이 얻고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포자기까지 했었는데, 약을 안 먹을 수 있고, 수련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인생도 덤으로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평생 마음의 한을 풀다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약속 시간도 평생 단 한 번 20분 늦은 것을 제외하곤 한 번도 어긴 적 없다는 변문희(80, 서울 마포구) 할머니. 곧고 바르게 살아왔지만, 돈 문제로 가족들과 멀어진 후 남은 건 고독뿐이었다. 외로움은 가슴을 항상 시리게 했다.

그러던 지난 3월, 잘못 보낸 문자 한 통에 상황이 반전됐다. “사후 장기기증을 하려고 할 때...” 변 할머니는 장기기증센터 담당자에게 보낼 문자를 13년간 알고 지낸 파룬궁수련생 박정혜(58) 씨에게 보냈다. 박 씨는 13년 전 건강식품 회사에서 근무할때 당시 고객이었던 변 할머니를 알게 되었다. 평소 할머니가 문자를 보내지 못하신다는 걸 알았던 박 씨는 ‘사후 장기기증’이란 문자 내용을 보고 덜컥 걱정이 앞섰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걱정하며 박 씨는 한 걸음에 할머니를 찾아왔다.

가족도 친지도 없이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냈던 변 할머니의 사정을 한참을 들던 박 씨는 파룬궁 수련을 권했다. 5장 공법 연공을 보여드리고, 수련서인 ‘전법륜’을 빌려 드렸다. 하

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자를 겨우 읽을 수 있었던 할머니가 책을 읽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신기하지. 책을 펼치자마자 마음이 세상 편한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런 편안한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제가 마음 속에 항상 친정 식구들에게 한이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 응어리가 모두 다 풀려버렸어요.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연락 안 하고 지낸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변 할머니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거나 걸어가면서 틈틈이 책을 읽었다. 늘 켜졌던 TV도 껐다. 자꾸 눈이 가서 읽다 보니 일주일 만에 책을 두 번이나 읽을 수 있었다. ‘9일 학습반’에 참여한 지 며칠 뒤, 할머니는 밤새 하체가 시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난로를 세게 틀고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가시지 않던 추위가 ‘9일 학습반’에 가면 거짓말처럼 추운 게 사라졌다. 그 이튿날부터 걸가부좌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졌다.

변 할머니는 “마음의 고통으로 실어증까지 겪었던 내가 다시 말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고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수련이 참 신기한 거 같다. 앞으로 수련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파룬궁 공법의 신기한 효과를 체험하다

김한석(80) 할아버지는 얼마 전 ‘9일 학습반’을 참가했던 학교 이사장님으로부터 수련을 소개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수전증 수술 뒤 후유증으로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파룬궁을 배운 뒤 신체 움직임이 좀 더 유연해지고 좋아졌다고 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에 대

해 “참되고 선량하고 참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잘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다.

20년째 파룬궁을 수련해온 아들을 따라 아내와 함께 수련을 시작하게 된 이창문(83) 할아버지 역시 효과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아들을 따라 공원을 나선다는 이 할아버지는 “(수련하기 전에)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수련하고는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웃음) 내 몸이 좋아지니까.”라고 소개했다.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조정숙(65) 씨는 남편과 함께 ‘9일 학습반’을 찾았다. 환자의 옷과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나면 온몸에 비 오듯 땀 범벅이 될 만큼 일이 힘들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었던 조 씨는 입원실에서 만난 한 수련생으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은 뒤 시간을 쪼개어 연공 동작을 배웠다.

“신기한 건 어디가 아플 때 내가 무슨 집착이 있나 하고 찾아보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허리가 아팠는데, 제가 화를 잘 내는 마음을 찾았죠. 그러고 나서 어느새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다리도 천근이라 걱정했는데, ‘9일 학습반’에 오면 다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평소 기(氣)에 대해 관심이 많아 책을 찾아보던 정형중(50대) 씨는 길거리에서 나눠준 전단을 보고 파룬궁에 대해 알게 됐다. 집 근처에서 배울 곳이 없어 인터넷 동영상으로 동작을 익히던 정 씨는 최근 텐티박스 ‘9일 학습반’에 참석했다. 그는 동작을 잘 배울 수 있었고, 강의를 듣다 보니 책을 좀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승 : 사건을 처리할 때 , 마음속에 정말 국법이 있었는가 ?

[밍후이왕] 인간 세상에는 고금을 통틀어 상급과 하급 관리가 있다 . 또한 상급과 하급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선량한 마음을 품고 백성을 행복하게 했고 ,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해쳐 자기 자손에게 해를 미치게 했다 . 아래에 고금의 사례 두 가지를 전하여 거울로 삼고자 한다 .

사육을 도모해 천벌을 받다

청나라 학자 원매 (袁枚) 는 한 시랑 (侍郎, 차관에 해당) 이 법을 집행하면서 사리를 도모해 응보를 받은 이야기를 ‘신제해 (新齊諧)’에 기록했다 .

청나라 건륭 (乾隆) 20 년에 황하 (黃河) 를 시찰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모 시랑이 웅기 마을의 공관에서 묵었다 . 시랑은 선달그믐날 밤에 시종과 함께 등불을 들고 강을 순찰하다가 당직을 서던 주부 (主簿, 장부와 인감을 관리하는 벼슬) 와 더불어 술을 마셨다 . 시랑이 공관으로 돌아온 후 , 곧 잠이 들었는데 ,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다 . 어머니는 그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닌데 , 네가 여기로 왔으니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 어머니는 시랑을 이승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묻기 위해 그를 데리고 강 서쪽의 고승을 찾아갔다 .

그들은 사당에 도착해 고승을 만났고 , 시랑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으나 , 고승은 본체만체했다 . 시랑이 고승에게 물었다 . “저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황하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 어떤 죄가 있어 죽어야 한다면 마땅히 알려 주시고 설복시켜야 할 것인데 , 어째서 저를 무시하십니까 ?” 고승이 웃으며 말했다 . “네가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미 복록이 소진되었는데 , 또 무엇을 묻는 것이냐 ?” 시랑이 말했다 . “비록 제가 죽인 사람이

많지만 , 그들은 모두 국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니 결코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 고승이 말했다 . “네가 사건을 처리할 때 , 정말 마음속에 국법이 있었느냐 ? 너는 다만 사육을 도모하면서 간신과 영합해 총애를 얻고 출세하려 한 것뿐이다 !”

노승의 탁자에 놓여 있던 옥여의 (玉如意) 가 곧장 시랑의 가슴을 가리켰다 . 시랑은 한 가닥 냉기가 폐부를 찔러 오장이 서늘해지고 , 심장이 요동치고 , 땀이 비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으며 ,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 그는 한숨 돌리고 나서 말했다 . “제가 죄를 알았으니 앞으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 고승이 말했다 . “너는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 오늘이 또 네가 죽을 날이 아니니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결산하겠다 !” 그래서 한 승려에게 명해 그를 이승으로 돌려보냈다 .

그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다가와 울며 말했다 . “애야 ! 너는 며칠밖에 못 산다 ! 너는 어째서 법을 집행할 때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 사육을 도모하고 , 간신과 영합해 총애를 얻어 출세하려 망상했느냐 ?” 시랑은 어머니에게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장탄식을 하고 꿈에서 깨어났다 . 시랑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사망했다 .

시랑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자와 영합하며 사리를 도모해 천벌을 받았고 , 참회했으나 이미 늦었다 . 사람의 명은 하늘이



정하며 , 길흉은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하늘의 도리를 준칙으로 삼고 ,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 어떠한 핑계로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

관청에서 수행을 잘하세

관아에서는 백성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며 ,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확실한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 .

‘좌화지과 (坐華志果)’에 쓰여 있기를 , 우성현 대중승 (大中丞, 고관의 상소를 접수하는 관리) 의 선친은 군 (郡) 에서 형리를 지냈다고 했다 . 그는 살아 있을 때 , 늘 동료들에게 말했다 . “관청에서 수행을 잘하세 ! 우리가 관청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건 보물이 있는 산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네 .” 노년의 형리는 사람을 때리는 곤장을 매일 오줌통에 담가뒀다 . 왜일까 ? 이유는 소변이 명든 곳에 살을 돋게하므로 담가두었던 곤장으로 사람을 때리면 비록 피부가 찢기고 터지고 , 피와 살이 뒤엉키지만 , 굼아서 문드러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 그는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

노인이 ‘관청에서 수행을 잘하자’라고 한 것은 시골벽적인 관아에서 지내도 사실은 거꾸로 자신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백성을 보호할 수 있으니 세력에 기대어 사람을 속이거나 , 상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 노인의 자상한 마음이 하늘의 도리에 부합한 것이며 , 출가하여 절에 가지 않고도 덕을 쌓고 몸을 닦은 것이다 . 글 / 즌란

대법을 존중한 사람들이 복을 받다

[명후이왕] 2021 년 5 월 13 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념하여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보내며, 파룬따파 창시인이신 자비로운 리홍쯔 사부님께 축하 인사를 올렸다.

회복한 암 환자 “제 삶은 당신 덕분입니다”

산둥성 자오위안시 한 마을의 노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6 년 전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우고 직장암이 나았습니다. 암이 다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질병도 없고 젊

고 활기칩니다. 리 대사님, 제 삶은 리 대사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자녀들도 대법을 지지하게 되었다. **상서로운 구절을 외워 중병에 걸린 어머니가 살아나다**

한 중국 여성은 2021 년 1 월 17 일 95 세 노모가 실수로 넘어져 뇌졸중이 오고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모는 혼수상태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를 위해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라는 상서로운 구절을 계속 외웠으며 어머

니는 금방 회복했다.

“내가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모두 리 대사님의 축복 덕분이다”

중국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의 한 퇴직자가 말했다. “파룬궁 수련을 하지는 않지만, 리 대사님의 은혜로 심심치 않게 보호받았습니다. 저는 몇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병이 훨씬 줄었으며,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 사부님의 축복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이 9 자를 매일 여러번 외우고, 마음속으로 평화와 만족을 느낍니다.”

연변박해 소식

■ 훈춘 장애인 여성 장진링이 연길구치소에 납치되다

[명후이왕] 근일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훈춘시 장애인 부녀자 파룬궁수련생 장진링(張俊玲)은 연길구치소에 납치되어 불법 감금됐다.

장진링은 올해 62 세이며, 3 급 장애가 있는 몸으로 왼쪽 종아리를 절단했다. 2 년전의 2019 년 중국 전통 새해 정월 초 열흘날 그는 훈춘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경찰에 의해 미행 납치와 집수색을 당했다. 장진링 소유인 파룬따파 서적, 두 대의 탁상용 컴퓨터도 강탈당했다.

장진링은 보름 동안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고, 불법 구류 기간이 만료된후 또 직장에서 건강검진 핑계로 그를 데려갔다. 사실 박해를 가중하려던 목적이었다. 장진링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당일 3 시에 그녀를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고, 앞으로 거주 감시한다고 했다. 훈춘시국가보안대대는 그녀를 제 3 파출소로

이송했다.

그날부터 사회구역 인원과 제 3 파출소 경찰은 부단히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와 소란했고, 그들은 모두 성명을 댔다.

2019 년 6 월 초, 훈춘시 검찰원에서는 장진링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검찰원에 다녀가라고 했고, 그녀의 신체상황이 허락되지 않자 검찰원은 공안국측에서 갈 것이라고 했다.

6 월 10 일 몇명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인원이 장진링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컴퓨터를 휴대하여 이른바 보충자료를 만든다면서 파룬따파서적의 유래를 묻고는 그더러 제작된 모함자료와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각각 서명하라고 했고 장진링은 거부했다.

2019 년 9 월 26 일, 연변주 룡정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았는데 시작한지 30 분도 안되는 과정에서 급히 그녀의 죄명을

정하고, 그의 신체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는 외부에서 집행했다.

2019 년 초 구치소에서 감금박해당하자 원래 건강했던 그녀의 몸 상태는 줄곧 좋지 않았다. 왼쪽 종아리 절단부위는 손상을 받는데다 몸이 허약해져 의족이 더는 맞지 않게되자 휠체어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공의 불법관리인원들은 부단히 직접방문 혹은 전화로 소란했고, 3 서를 써 신앙을 포기하라고 핍박했다. 장진링의 온 가정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되자 심신에 아주 큰 피해를 받았다.

2021 년 6 월 9 일, 핵산검측후



장진링(張俊玲)을 연길구치소로 납치했다. 불법감금하여 박해를 가중하려는 목적이다.

■ 연길시 조양천 최군영(崔群英)이 길림시법원에 의해 모함되다

■ 연길시 여가(如家) 호텔에서 세뇌반을 열어 계속해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